



EAI 여론브리핑 제20호 (2007. 12. 23)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2007)
2007 대선패널조사 6차 조사 분석



“17대 대선결과와 차기 정국변화 예상”

목차

특집1.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현재 판세로는 총선에서 한나라당 2/3 의석에 육박.....이현우 위원

특집2. 향후 정국변화의 변수들 : 우려 섞인 기대

장기변동요인. 한국사회 보수화되나?.....서현진 위원

단기변동요인1. BBK의 대선이후 영향력.....임성학 위원

단기변동요인2. 이명박 당선자의 허니문효과.....정한울 위원

특집3. 17대 대선과 미디어 효과.....김성태 위원

- 기 획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 후 원 : SBS · 중앙일보
- 실 사 : 한국리서치
- 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2006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
- 표 본 : 1차 패널 3,503명(2007. 4.25-4.28)
 - 2차 패널 2,911명, 유지율 83.1%(2007. 8.10-8. 13)
 - 3차 패널 2,524명, 유지율 72.1%(2007.10.17-10.20)
 - 4차 패널 2,382명, 유지율 68.0%(2007.11.25-11.27)
 - 5차 패널 2,208명, 유지율 63.0%(2007.12.11-12.12)
 - 6차 패널 2,111명, 유지율 60.3%(2007.12.20-12.21)
- 표본추출 : 지역·성·연령별 쿼터 할당 후 무작위 가구 추출하여 이후 6차 패널조사에 패널로 참여할 응답자 선정
-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
- 가 중 치 : 지역(권)·성별·세대·학력별 가중치 부여



특집1.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현재 판세로는 총선에서 한나라당 2/3 의석에 육박
이명박 후보지지 총선으로 이어지나?

이현우(서강대 정외과)

대선에서 48.7%를 득표하고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승리한 이명박 후보의 지지가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있다. 대통령 취임 후 100일 정도까지는 국민과 언론이 새로운 대통령에게 기대와 호의적 태도를 보이는 밀월기간(honeymoon period)이다. 신임대통령 취임일인 2월 25일부터 18대 총선일인 4월 9일까지는 채 두 달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초기대통령의 인기덕분에 프리미엄을 받은 한나라당이 제 1다수당을 넘어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며 선전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대선보다는 총선에서 소속정당에 따른 투표성향이 훨씬 강하며, 통합신당의 향후 변화와 이회창씨의 창당 등 새로운 변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설득력이 있다. 더욱이 공천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탈락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마저 상정한다면 현시점에서 총선결과 예측은 불가능하다.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유권자들이 총선과 관련해 어떤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 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분석해 본다. 우선 대선에서 이당선자를 선택하고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총선에서도 한나라당후보를 지지할 한나라당 '고정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이 40.7%(793/1948)이다. 대선에서 이당선자들 지지하지 않았지만 총선에서는 대통령 정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당지지층'의 응답자가 11.8%(229명) 그리고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를 선택했지만 보수정당 창당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회귀층'이 2.5%(49명)이다. 이상에 속한 응답자들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그 합은 전체의 55%에 달한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선거구당 한 명의 다수득표자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므로 다수득표 정당들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이다. 이전 총선결과에서 보듯이 1, 2위의 다수득표 정당은 의석수에서 대략 각각 10.5%와 4.5% 정도의 이득을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한나라당의 의석이 전체의 65%가량이 되어 과반수를 훨씬 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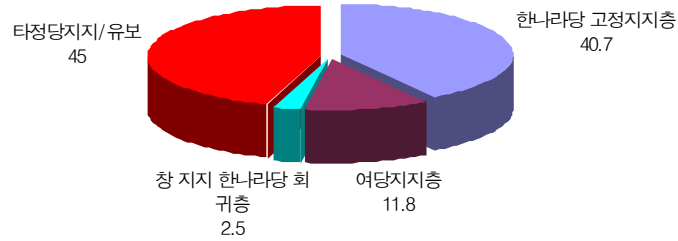
정당지지에 따른 비례대표제를 보면 한나라당의 지지가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정당 지지 유보층을 포함해도 50%에 가깝기 때문에 전체 53석 가운데 27석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전체 국회의원 정수 299명 가운데 185석이 되어 총 62%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러한 비율은 개헌가능 의석수인 2/3에 육박하는 것이다.

더욱이 세대별로 투표율에 차이가 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고 동시에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가 높기 때문에 총선투표율이 대선투표율보다 낮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지자 동원에서는 한나라당이 다른 정당보다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추측은 선거후 여론조사에 근거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계산한 것으로 중요한 사항들이 고려되지 못한 것이 있다. 총선에서는 표의 집중도가 중요하다.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분포보다는 선거구별로 집중된 지지가 오히려 의석 확보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범여권 득표노력과 이회창 전총재의 창당이 총선바람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천과정에서 당내갈등이 심해지면 후보난립으로 인해 표의 분산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중앙일보 보도기사).



[그림1] 대선 투표로 본 총선 지지층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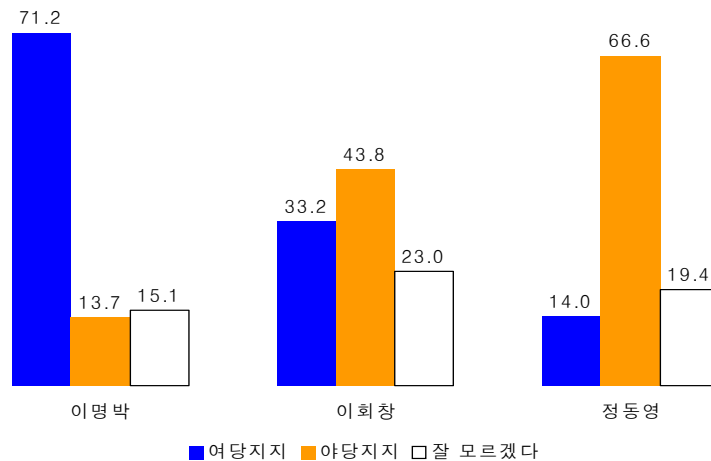


[추가분석]

1. 대선지지와 총선지지

- 4월 총선에서 이명박지지자들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여당지지, 정후보지지자들은 대통령 독주를 막기 위한 야당지지 선택이 월등히 많음
- 이회창 후보 지지자들은 여야당지지에 비교적 고른 분포. 모름(23%) 비율이 가장 높음.
-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 대한 가까운 정서로 인해 여당지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
- 이회창 지지자의 50%가 한나라당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음

[그림2] 대선지지와 총선지지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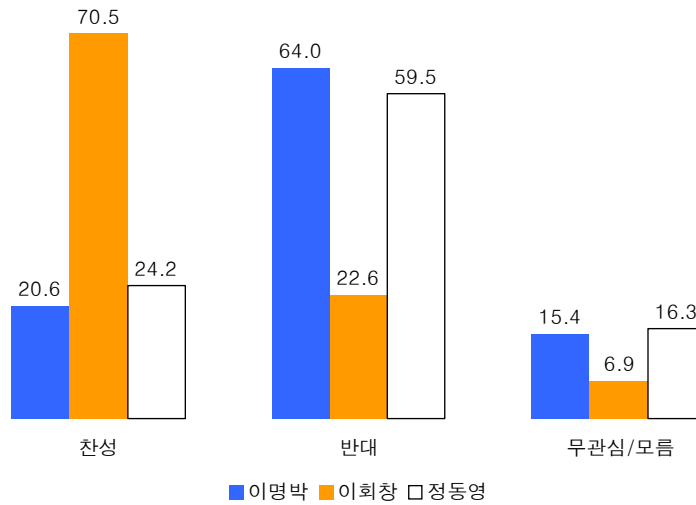




2. 鼎당의 창당 영향력

- 이회창 후보의 창당은 향후 한나라당에 부담이 되므로 이명박 지지자들 반대가 가장 많음
- 이회창 지지자들 가운데 22.6%창당 반대. 10명 중 2명 꼴.
그렇다면 이들은 다시 한나라당을 지지할 잠재적 의사를 가진 집단
- 정동영지지자들의 반대비율(59.5%)이 높은 것은 선거에 전략적 이용보다는 보수결집에 대한 정치적 반대 입장 표명으로 해석해야 할 것

[그림3] 대선지지후보별 보수정당 창당에 대한 입장(%)





특집2. 향후 정국변화의 변수들 : 우려 섞인 기대

1. 한국사회 보수화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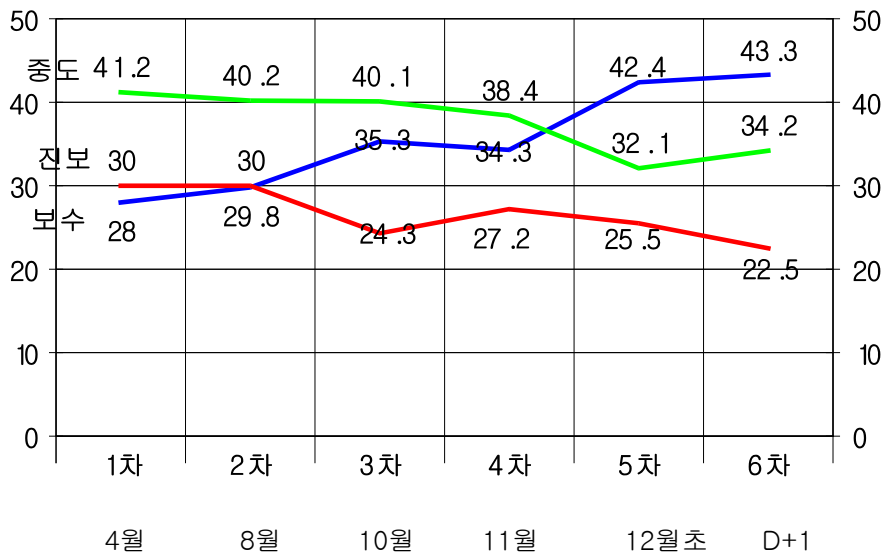
서현진(성신여대 사회교육학과)

□ 한국 유권자의 보수화 추세

지난 4월 1차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조사결과 중 눈에 띄는 변화는 유권자 이념 성향의 보수화 추세이다. 대통령 선거 직후 조사에서 자신들의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는 43.3%로 진보 22.5% 보다 두 배 정도 많았다. 이들 중 4월에도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는 28%로 당시 진보 30%, 중도 41.2% 보다 적었다. 그러나 자신을 보수로 진단한 유권자는 10월 3차 조사에서 35%로 증가하였고 12월에는 43%가 되어 8개월 동안 무려 15%나 증가하였다.

선거 직후 자신을 보수라고 답한 유권자들 중 선거 초반 중도(37.2%) 뿐 만 아니라 진보(21.5%)였던 비율은 상당히 높다. 각 조사 시점마다 중도나 진보 유권자의 25%이상이 보수로 전환된 반면 보수에서 진보나 중도로 변한 유권자는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즉 선거운동 기간 동안 꾸준히 보수 성향 유권자가 증가한 것이다.

[그림1] 패널조사 차수별 이념성향 변동(%)



□ 이명박 후보의 이념적 성향에 대한 유권자 평가도 보수적으로 변화

이런 보수화 추세는 이명박 후보의 이념 성향 평가 변화와 함께 나타났다. 각 후보의 이념 성향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3차부터 조사되었는데 정동영 후보는 4.4, 이명박 후보는 5.4



의 평균 점수를 받았다. 4차 조사에서도 이들에 대한 평가는 비슷하였고 새로 등장한 이회창 후보는 6.4로 가장 보수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6차 조사를 보면 정동영, 이회창 후보에 대한 유권자 평가는 별 변화가 없는 반면 이명박 후보에 대한 평가는 매우 보수적으로 변했다. 이는 유권자 자신의 이념 평균 점수가 1차 4.9에서 6차 5.5로 점차 보수화된 현상과 유사한 것이다.

[표1] 패널조사 차수별 유권자 및 주요 후보 이념평가 변동(점)

	1차(4월)	2차(8월)	3차(10월)	4차(11월)	5차(5)	6차(12월)
유권자	4.9	5.0	5.3	5.2	5.5	5.5
이명박			5.4(0.1)	5.5(0.3)		6.2(0.7)
이회창				6.4(1.2)		6.3(0.8)
정동영			4.4(-1.1)	4.4(-0.8)		4.5(-1.0)

* ()안의 숫자는 유권자와의 거리 차, -는 유권자보다 진보적, +는 보수적 의미.

** 0~4: 진보, 5: 중도, 6~10은 보수, 0(매우 진보적)에 가까울 수록 더 진보적, 10(매우 보수적)에 가까울수록 더 보수적

더 흥미로운 것은 조사시점마다 이명박 후보의 평균이 늘 유권자 평균과 가장 가깝다는 것이다. 즉 유권자는 자신들의 성향과 가장 비슷한 후보를 이명박 후보로 인식하였고 이는 궁극적으로 이후보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보수 유권자 중에 이 후보 지지자는 1차에서 5차까지 증가하였고, 진보 중 34.2%가 이 후보에게 투표한 반면 보수 중에는 62.1%가 투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선거기간 동안 이명박 지지자들의 이념 성향을 추적해보면 1차에서 보수 비율은 28.9%에 불과하지만 2차 32.7%, 3차 40.6%를 거쳐 6차에서는 51.3%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리고 이명박 지지 보수층의 증가 시점은 보수적 유권자 비율 증가 시점과도 거의 일치한다.

이런 변화는 여론의 보수화 추세에 따라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는 이명박 후보가 보수 쪽으로 전략적 이동을 한 것에서 비롯되었는지 모른다. 한편 진정한 보수를 자처하는 이회창 후보의 공격이 거세지자, 이명박 후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수 유권자 결집에 주력하는 선거운동을 펼치면서 나타난 이명박 효과로 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명박 효과로 국민이 보수화되었는지 아니면 보수화되는 여론변화에 이 후보가 편승하였던지 상관없이, 사회적 보수화와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일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이 자신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정책과 업무를 추진한다고 믿는다면 아낌없는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런 지지는 향후 대통령이 허니문 현상을 피해 든든한 정책적 기반 형성과 정국안정에 힘쓸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2, BBK 효과 지속될까?

BBK가 집권초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임성학(서울시립대)

대선이 끝난 이후에 4개월 후의 총선승리를 위해 여야는 BBK사건을 중심으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BBK사건에 대한 특검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은 다르겠지만, 여야 모두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청와대에 이명박 특검 거부를 촉구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상태다. 이 당선자는 대선 전 특검을 수용한다고 선언했으며 BBK와의 연루가 사실이라면 사퇴한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따라서 적절한 명분 없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야당의 거센 공세로 밀려 수세적 위치에 서게 되고 결국 총선의 낙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통합신당 등 현 여권은 BBK사건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좋은 공격거리이지만 검찰수사결과와 유사한 특검 결과가 나온다면 선거참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다.

각 당의 전략은 국민들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대선과정에서 BBK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견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월 5일 BBK사건에 대한 검찰의 발표가 있었다. 12월 11-12일 양일에 걸친 패널 조사에서 검찰의 발표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34.1%가 “신뢰한다”고 답변한 반면 62.3%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해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검찰의 조사발표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BBK조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통합신당이 발의한 것에 대한 조사결과는 “공감한다” 44.1%, “공감하지 않는다” 50.1%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비록 검찰의 수사발표를 신뢰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조금 많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선이 끝난 12월 20-21일 조사에서 국민들이 BBK사건에 대해 다소 완화된 태도 변화를 볼 수 있다. BBK 동영상 이명박 후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 57.9%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며 5차 조사에서 검찰의 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BBK 특검 도입에 대해서 동의하다는 의견 52.4%,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 47.0%로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BBK사건에 대한 국민의 태도는 검찰수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지만 이 사건이 정략적으로 이용되기보다는 조용히 특검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총선을 준비하는 정당들은 BBK보다는 새로운 이슈와 정책을 준비해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일 것이다.

[표1] BBK 검찰발표와 대선 이후 여론변화

내용	5차조사(12월 11-12일)						6차조사(12월 20-21일)						
	검찰의 BBK 사건 결과			통합신당 검찰총장탄핵소추안			BBK동영상의 이명박 후보에 대한 영향				BBK 특별검사제도입		
문항	신뢰함	신뢰안함	모름	공감함	공감안함	잘 모름	더 좋아짐	영향 없음	더 싫어짐	듣지 못함/ 모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모름
%	34.1	62.3	3.7	44.1	50.1	5.8	4	57.9	36.5	1.6	52.4	47.0	.6



3. 이명박 당선자의 허니문 효과

위기요인이자 기회요인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허니문 효과, 집권초기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초당파적 높은 지지로 이어져,
- 이 당선자 국정운영 잘할 것 86.3%, 그러나 맹목적 기대 아니다
 - 주요 정책 아젠다에 대해서는 냉담, 사교육비 문제와 남북관계는 기대 낮아

국민들의 80-90%는 이전 선거에서 누굴 찍었건 간에 당선된 새 대통령에게 높은 지지와 기대를 보낸다. 야당도 정부에 정치공세도 무디어 질 수 밖에 없다. 이른바 허니문(밀월) 효과다. 이 허니문 효과를 잘 활용하면 새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이 담긴 개혁정책이나 선거 시기 내놓은 핵심공약을 야당과 언론의 협조를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기 끝까지 모든 국민과 야당의 입맛에 맞춰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야당과의 정치적 갈등도 심화된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추락하기 시작한다. 국민들의 기대가 맹목적일수록 추락의 폭도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거직후 실시한 패널조사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국민들의 초당파적 기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응답자의 86.3%는 이 당선자가 국정운영을 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에게 투표했던 사람의 73%가, 이회창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의 83.5%도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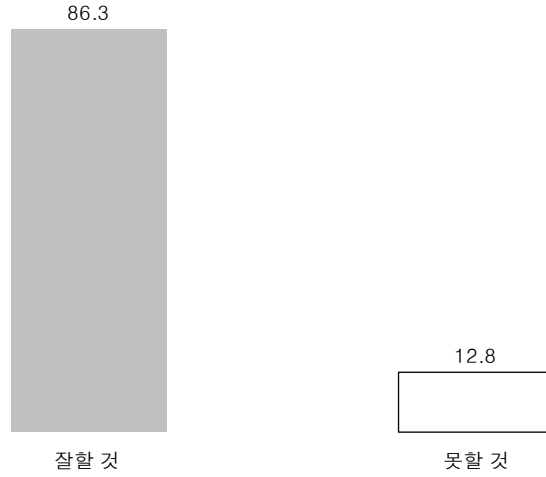
구체적인 정책영역별로는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냉정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현실적이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 경제양극화문제가 지금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46.4%이고, 노사관계도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9.6%에 그쳤다. 집값문제의 경우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과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을 합해도 40.2%에 불과했다. 특히 사교육비 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이당선자에 냉담했다. 각각 응답자의 20.3%, 22%의 응답자만이 현 정부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고 나머지는 10명 중 8명 꼴로 별로 달라질 것이 없거나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전체적으로는 큰 기대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과도한 기대를 걸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의 여론조사에서 새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전반은 물론 구체적인 정책영역에 대해서도 일관된 기대감을 보여 주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역대 정권에서 새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기대가 더 큰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국민들이 실감한 결과로 보인다. 사실 이명박 당선자 역시 747공약이나 3000주가시대 등 선거운동과정에서 국민들의 기대를 자극하는 선거공약이 적지 않았다.

이번조사에서 국민들은 새 대통령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우려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맹목적인 기대도 맹목적인 불신도 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이명박 당선자에게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강조하는 실용노선은 맹목적 기대와 무조건적인 불신 속에서 꽃피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제 선거 시기에 내놓았던 공약들을 냉정하게 재점검해야 한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가다듬을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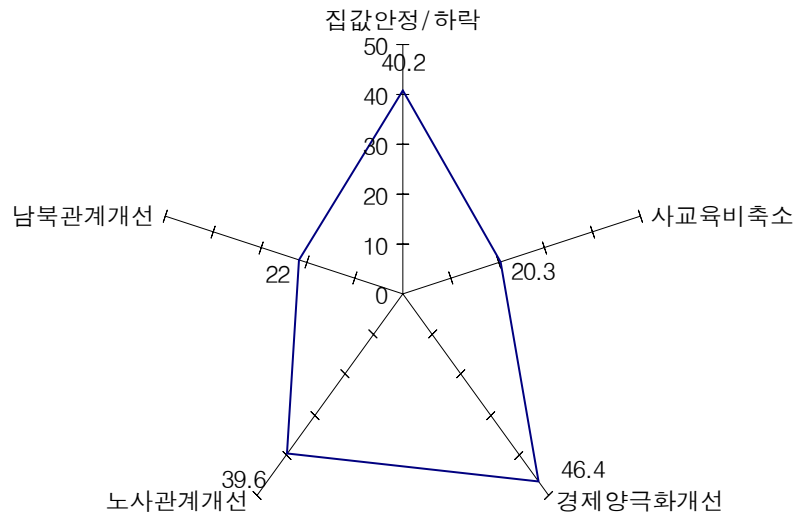


[그림1]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국정운영 기대(%)



*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그림2] 차기정부 하에서 주요 과제별 개선 전망 “개선될 것” 응답비율(%)



* 좋아질 것, 별 영향 없을 것, 나빠질 것, 모름/무응답 중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비율임

** 집값의 경우 올라갈 것, 안정될 것, 하락할 것, 모름 응답 중 안정될 것과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한 값



[표1] 대선지지후보별 이명박 후보 국정운영 전망

[문6] 이번에 당선된 000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 할 것으로 보세요, 잘 못할 것으로 보세요?

Base=전체	사례수 (명)	①매우 잘 할 것이다	②대체로 잘 할 것이다	①+②	③별로 못할 것이다	④전혀 못할 것이다	③+④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 전 체 ■	(2111)	23.7	62.6	86.3	11.1	1.8	12.8	.9	100.0
○ 대선후보지지6차○	(1026)	42.1	57.0	99.1	.6	.1	.6	.2	100.0
이명박	(217)	9.4	74.1	83.5	14.8	.9	15.6	.9	100.0
정세균	(459)	4.3	68.7	73.0	21.1	3.8	24.9	2.1	100.0
이회창	(7)	12.4	87.6	100.0	.0	.0	.0	.0	100.0
김영길	(55)	2.3	58.2	60.5	32.3	7.1	39.5	.0	100.0
다만 후보	(160)	4.5	59.4	63.9	27.8	6.4	34.2	1.9	100.0
표안	(6)	.0	85.0	85.0	15.0	.0	15.0	.0	100.0
표안	(165)	10.4	69.0	79.5	17.5	2.3	19.8	.8	100.0
표안	(16)	10.9	48.2	59.1	40.9	.0	40.9	.0	100.0
○ 이명박	(475)	17.2	59.0	76.2	18.6	4.2	22.8	1.0	100.0
표안	(721)	22.0	63.5	85.5	11.2	1.6	12.8	1.7	100.0
표안	(915)	28.5	63.7	92.2	7.0	.7	7.7	.2	100.0
○ 표안	(1946)	24.8	62.0	86.9	10.5	1.8	12.3	.9	100.0
표안	(165)	10.4	69.0	79.5	17.5	2.3	19.8	.8	100.0



특집3. 17대 대선과 미디어 효과

2007년 대선 인터넷의 영향력 현저히 줄어들어

김성태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교수)

지난 2002년 대선은 “인터넷 선거”라고 불린다. 네티즌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일등공신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인터넷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2002년 당시 효순, 미선 양 추모시위로 인한 반미감정의 증폭, 남북정상 회담 이후의 화해 무드 속에서 변화를 바랬던 젊은 네티즌들의 댓글 논쟁이 이번 선거에는 없었다. 최근 미국 총선에서 동영상 손수제작물(UCC)이 후보자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각 후보 측은 선거기간 내내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 많은 공을 들였지만, 유권자들의 자체제작 콘텐츠보다는 각 후보 측 캠프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CCC(Camp Created Contents) 동영상이 주를 이루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선거시작과 함께 포털 사이트에서 대대적으로 준비한 대선 관련 섹션도 방문자수가 예상보다 저조하였다.

최근 패널조사(SBS-중앙일보-EAI)에 의하며 “선거운동 기간 중 지지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정보를 어느 매체를 통해 가장 많이 얻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유권자들의 약 71%가 전통 매체인 텔레비전(54%)이나 신문(17%)을 선택한 반면, 24%만이 인터넷을 뽑았다. 연령대별 인터넷의 중요성을 비교해보면 20대는 인터넷이 가장 중요한 선거정보 매체(47%)라고 대답한 반면, 30대 34%, 40대 17% 그리고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약 7% 미만을 보여 연령이 많아질수록 지지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정보의존도에서 인터넷의 중요성이 급속도로 감소하였다. 반면, 텔레비전을 경우에는 30대 이상 전 연령대층에서 약 50%를 상회하며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뽑혔고, 신문의 경우는 40대 이상 연령대층에서 20%이상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뽑히며 인터넷 보다 비율이 높았다.

인터넷을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꼽은 응답자들을 분석해보면 화이트 칼라(47%)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학생(57%)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념성향에서는 자신이 보수라고 밝힌 계층에서는 텔레비전(54%)이 인터넷(21%), 신문(20%)에 비해 약 2배 이상 중요한 매체라고 꼽은 반면, 진보이념 계층의 경우에는 텔레비전(42%), 인터넷(37%), 신문(16%) 순으로 그 간격이 줄어들었다. 투표여부에 대한 비교에서는 투표를 하였다라고 대답한 유권자들의 경우 약 23%가 인터넷에 가장 많이 의존하였다고 답한 반면, 투표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한 유권자들의 경우는 이 비율이 35%로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인터넷을 가장 중요한 선거 정보원으로 꼽은 사람일수록 투표에 불참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수치는 이번 선거결과에 인터넷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이념 스펙트럼, 투표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대선에서는 2002년 대선에 비해 선거과정에서 주정보원으로 인터넷의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텔레비전과 신문과 같은 전통매체의 중요성이 다시 커졌음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또한 자발적으로 구성된 정치적 팬클럽을 통해 인터넷 여론을 주도하며 선거판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지난 대선에서의 20-30대 진보성향의 네티즌이나 시민 단체의 활동도 이번에는 없었다.

그럼 과연 이번 대선에서 인터넷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지난 대선에 비해 구세대/신세대, 보수/진보, 안정/변화 등 누리꾼들에 의해 주도된 세대, 이념 논쟁이 거의 없었고, 대선 출마자들의 끊임없는 네거티브 공방, 선두 후보자간의 현저한 지지율 격차 등으로 네티즌 특히 젊은 누리꾼들의 선거관심이 지난 대선에 비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이나 댓글 실명제 등의 강화된 규제가 지난 대선에서 누리꾼들의 주요한 정치 참여 채널이었던 정치 토론방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으며,



또한 후보 측 캠프 홍보물이 주류를 이룬 UCC는 유권자들의 관심부족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지난 대선 이후 우리 사회는 인터넷을 통해 올린 한 네티즌의 이슈가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경험해왔다. 이러한 것은 후보자에게나 유권자에게나 하나의 두려움일 수 있으며, 그럴수록 정보 신뢰성에 대한 의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투표 3일전에 터진 'BBK'동영상 역시 인터넷상에 활발하게 올라왔지만 오히려 이명박 지지자들의 결속을 강화시킨 것도 이러한 경향의 표시이며 2002년 대선에서의 학습효과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에서의 인터넷 영향력의 감소는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문26] 00님께서 선거운동기간 중 지지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정보를 어느 매체를 통해 가장 많이 얻으셨나요?

Base=전체	사례수 (명)	TV	신문	인터넷	선거홍보 물	기타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	(2111)	54.0	16.5	23.7	1.5	4.3	.1	100.0
○ 연 령 ○								
19 - 29 세	(457)	38.8	6.4	47.3	2.6	4.8	.2	100.0
30 - 39 세	(494)	46.8	14.4	33.9	1.6	3.3	.0	100.0
40 - 49 세	(478)	54.7	20.9	17.4	1.0	6.0	.0	100.0
50 - 59 세	(314)	63.3	24.8	7.5	.5	3.7	.1	100.0
60 세 이상	(368)	73.8	19.0	2.7	1.3	3.2	.0	100.0
○ 학 령 ○								
고졸 이하	(489)	75.4	11.1	3.7	.9	8.9	.0	100.0
대졸 이상	(766)	56.8	19.2	18.9	1.8	3.3	.0	100.0
대재이	(856)	39.3	17.1	39.5	1.5	2.5	.2	100.0
○ 직 업 ○								
회사원	(525)	36.0	12.9	46.8	2.1	2.1	.2	100.0
블로그	(336)	61.7	13.0	15.0	1.4	8.8	.0	100.0
자유업	(417)	59.0	22.0	15.6	.7	2.6	.1	100.0
주부	(575)	69.4	18.3	7.8	.8	3.6	.0	100.0
학생	(119)	32.1	7.5	56.5	1.3	2.6	.0	100.0
무직/기타/무응답	(140)	43.9	22.1	19.4	3.9	10.7	.0	100.0
○ 소 득 ○								
100만원 미만	(222)	71.0	17.3	3.3	3.1	5.3	.0	100.0
100-199만원	(320)	66.1	12.6	15.7	1.3	4.3	.0	100.0
200-299만원	(487)	60.7	13.6	20.1	1.2	4.4	.0	100.0
300-399만원	(447)	48.2	18.9	30.2	.5	2.1	.1	100.0
400만원 이상	(581)	41.1	19.8	33.8	1.6	3.5	.1	100.0
모름/무응답	(54)	39.3	6.5	25.8	4.9	23.5	.0	100.0
○ 대선후보 지지차 ○								
이명박	(1026)	55.4	22.4	17.6	1.1	3.5	.0	100.0
이회창	(217)	55.1	13.1	25.5	.9	5.3	.0	100.0
정세균	(459)	59.8	11.7	24.1	1.8	2.6	.0	100.0
이영종	(7)	34.1	12.4	53.5	.0	.0	.0	100.0
권영세	(55)	27.7	13.1	45.3	3.7	10.3	.0	100.0
다만	(160)	44.2	8.2	38.8	3.1	5.7	.0	100.0
모름/무응답	(6)	56.0	.0	36.5	.0	.0	7.5	100.0
모름/무응답	(165)	48.1	8.6	34.8	1.5	6.5	.5	100.0
모름/무응답	(16)	39.7	3.1	20.8	3.5	32.9	.0	100.0
○ 이 전 보 ○								
이명박	(475)	42.0	15.9	37.0	1.3	3.5	.3	100.0
이회창	(721)	62.4	12.2	19.1	1.6	4.8	.0	100.0
정세균	(915)	53.7	20.2	20.5	1.4	4.3	.0	100.0
○ 투 표 여 부 ○								
여성	(1946)	54.5	17.2	22.8	1.5	4.1	.0	100.0
남성	(165)	48.1	8.6	34.8	1.5	6.5	.5	100.0



6차 패널조사 브리핑

정한울(EAI여론분석센터 부소장)

(1) 대선결과

1. 8개월 간 대선 지지율 변동

□ 최종결과 : 이명박 1위, 정동영 2위, 이회창 3위

5차 조사 이후 6차 조사에서 투표 층에서의 지지율을 보면 이명박 후보가 실제 득표율보다 약 4%가량, 문국현 후보가 3%가량 과대 대표된 반면 정동영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4%씩 과소대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길 후보는 실제투표결과와 좌사결과가 유사했다.

[표1] 대선 지지후보 변동(%) 1-5차 조사 응답자 2111명

	1차(4.25-28)	2차(8.10-13)	3차(10.17-20)	4차(11.25-27)	5차(12.11-12)	6차(12.20-21)
이명박	45.3	38.9	54.6	42.1	46.4	52.7
박근혜	21.6	25.5				
이회창				14.4	11.5	11.2
손학규	6.1	6.7				
정동영	3.3	2.7	15.3	15.1	17.0	23.6
이해찬		1.3				
문국현	0.2		7.4	8.2	8.0	8.2
권영길	0.5	0.9	2.3	2.5	2.7	2.8
이인제			2.1	0.7	0.6	0.4
다른후보	9.7	6.2	1.2	0.6	0.4	0.3
부동층/기권	13.3	17.9	17.1	16.5	13.4	

2. BBK 동영상의 후폭풍, 얼마나?

(1) 5차 → 6차 변동의 최대변수는 BBK 동영상 사건

△ 이명박

5차 지지자 94.3% 지지, 이회창 지지층의 16.1%, 부동층의 33.1%를 흡수하면서 지지상승

투표한 응답자 1944명을 분석해보면 선거 3일 앞두고 터진 BBK 동영상 유포 이후 잠시 이명박 후보의 지지이탈이 나타나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 5차 지지자의 94.3%가 지지를 유지한 반면 이탈한 규모는 5.7%에 불과했다.



△ 정동영

5차 지지자 94.5% 지지, 문국현 지지자의 18.8%, 권영길 지지자의 20.8%, 부동층의 30.9%를 흡수하면서 지지율 상승

정동영 후보 역시 5차 지지자 330명 중 312명(94.5%)이 지지를 유지하고 5.5%만이 지지대열에서 이탈했다. 반면 5차 조사에서 문국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의 각각 18.8%와 20.8%, 부동층의 30.9%를 흡수하면서 지지율 상승이 있었다.

△ 이회창 후보 지지층 이탈(25.4%) 크고, 부동층 흡수력 상대적으로 떨어져

이회창 후보 지지층 중 16.1%가 이명박 후보 지지로 돌아서고, 이명박 · 정동영 후보가 각각 33.9%, 30.9%를 흡수한 반면 5차 부동층에서 이회창 지지로 돌아선 응답자는 11.7%에 불과했다. 이는 부동층의 13.5%를 흡수한 문국현 후보보다 못한 수치이다.

[표2] 대선5차 -> 6차 지지변동(기권자 배제) 1,944명

		대선지지6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이인제	다른 후보	모름	Total
대선 지지 5	이명박	876	12	18	14	4	0	1	4	929
	5차->6차	94.3%	1.3%	1.9%	1.5%	.4%	.0%	.1%	.4%	100.0%
	6차->5차	85.5%	5.6%	3.9%	8.8%	7.4%	.0%	17%	25.0%	47.8%
	이회창	36	167	15	6	0	0	0	0	224
	5차->6차	16.1%	74.6%	6.7%	2.7%	.0%	.0%	.0%	.0%	100.0%
	6차->5차	3.5%	77.3%	3.3%	3.8%	.0%	.0%	.0%	.0%	11.5%
	정동영	13	2	312	2	0	0	0	1	330
	5차->6차	3.9%	.6%	94.5%	.6%	.0%	.0%	.0%	.3%	100.0%
	6차->5차	1.3%	.9%	67.8%	1.3%	.0%	.0%	.0%	6.3%	17.0%
	문국현	10	3	30	101	14	1	1	0	160
	5차->6차	6.3%	1.9%	18.8%	63.1%	8.8%	.6%	.6%	.0%	100.0%
	6차->5차	1.0%	1.4%	6.5%	63.1%	25.9%	14.3%	17%	.0%	8.2%
	권영길	7	4	11	5	26	0	0	0	53
	5차->6차	13.2%	7.5%	20.8%	9.4%	49.1%	.0%	.0%	.0%	100.0%
	6차->5차	.7%	1.9%	2.4%	3.1%	48.1%	.0%	.0%	.0%	2.7%
	이인제	3	0	2	0	0	5	0	0	10
	5차->6차	30.0%	.0%	20.0%	.0%	.0%	50.0%	.0%	.0%	100.0%
	6차->5차	.3%	.0%	.4%	.0%	.0%	71.4%	.0%	.0%	.5%
	다른후보	2	1	1	1	0	0	3	0	8
	5차->6차	25.0%	12.5%	12.5%	12.5%	.0%	.0%	38%	.0%	100.0%
	6차->5차	.2%	.5%	.2%	.6%	.0%	.0%	50%	.0%	.4%
	부동층/기권	78	27	71	31	10	1	1	11	230
	5차->6차	33.9%	11.7%	30.9%	13.5%	4.3%	.4%	.4%	4.8%	100.0%
	6차->5차	7.6%	12.5%	15.4%	19.4%	18.5%	14.3%	17%	68.8%	11.8%
Total		1025	216	460	160	54	7	6	16	1944
	5차->6차	52.7%	11.1%	23.7%	8.2%	2.8%	.4%	.3%	.8%	100.0%
	6차->5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	100.0%

□ 5차 지지자 중 기권으로 돌아선 규모 역시 이명박 후보 지지층이 가장 적어

5차 지지자 중 기권 비율 : 이명박 5.6(5.1+0.4)% , 정동영 7.9(7.6+0.3)% , 이회창 7.8%



이명박 후보가 압승한 비결에는 지지층의 강한 결집으로 인해 5차 지지자 중 기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5차 지지자 중 기권한 비율을 살펴보면 5차 이명박 지지자 980명 중 55명(5.6%)였지만 정동영 후보는 357명의 7.9%, 이회창 후보는 지지자의 7.8%가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5차지지-> 6차지지 (기권자 포함하여 계산) 2,111명

대선지지5 * 대선지지6(기권포함) Crosstabulation

대선지지6(기권포함)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이인 제	다른 후보	무름	기권	Total
대선 지지 5	이명박	876	12	18	14	4	0	1	4	51	980
	5차->6차	89.4%	1.2%	1.8%	1.4%	.4%	.0%	.1%	.4%	5.2%	100.0%
	6차->5차	85.5%	5.6%	3.9%	8.8%	7.4%	.0%	17%	25.0%	30.7%	46.4%
	이회창	36	167	15	6	0	0	0	0	19	243
	5차->6차	14.8%	68.7%	6.2%	2.5%	.0%	.0%	.0%	.0%	7.8%	100.0%
	6차->5차	3.5%	77.3%	3.3%	3.8%	.0%	.0%	.0%	.0%	11.4%	11.5%
	정동영	13	2	312	2	0	0	0	1	27	357
	5차->6차	3.6%	.6%	87.4%	.6%	.0%	.0%	.0%	.3%	7.6%	100.0%
	6차->5차	1.3%	.9%	67.8%	1.3%	.0%	.0%	.0%	6.3%	16.3%	16.9%
	문국현	10	3	30	101	14	1	1	0	9	169
	5차->6차	5.9%	1.8%	17.8%	59.8%	8.3%	.6%	.6%	.0%	5.3%	100.0%
	6차->5차	1.0%	1.4%	6.5%	63.1%	25.9%	14.3%	17%	.0%	5.4%	8.0%
	권영길	7	4	11	5	26	0	0	0	5	58
	5차->6차	12.1%	6.9%	19.0%	8.6%	44.8%	.0%	.0%	.0%	8.6%	100.0%
	6차->5차	.7%	1.9%	2.4%	3.1%	48.1%	.0%	.0%	.0%	3.0%	2.7%
	이인제	3	0	2	0	0	5	0	0	2	12
	5차->6차	25.0%	.0%	16.7%	.0%	.0%	41.7%	.0%	.0%	16.7%	100.0%
	6차->5차	.3%	.0%	.4%	.0%	.0%	71.4%	.0%	.0%	1.2%	.6%
	다른후보	2	1	1	1	0	0	3	0	1	9
	5차->6차	22.2%	11.1%	11.1%	11.1%	.0%	.0%	33%	.0%	11.1%	100.0%
	6차->5차	.2%	.5%	.2%	.6%	.0%	.0%	50%	.0%	.6%	.4%
	부동층/ 기권	78	27	71	31	10	1	1	11	52	282
	5차->6차	27.7%	9.6%	25.2%	11.0%	3.5%	.4%	.4%	3.9%	18.4%	100.0%
	6차->5차	7.6%	12.5%	15.4%	19.4%	18.5%	14.3%	17%	68.8%	31.3%	13.4%
Total		1025	216	460	160	54	7	6	16	166	2110
	5차->6차	48.6%	10.2%	21.8%	7.6%	2.6%	.3%	.3%	.8%	7.9%	100.0%
	6차->5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	100%	100%	100.0%

□ BBK 투표영향 없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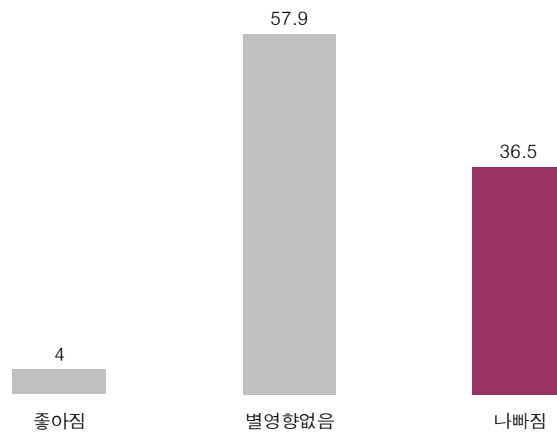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별 영향 없었다는 응답이 57.9%, 나빠졌다는 응답이 36.5%였지만, 좋아졌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6차 조사에서 유력 후보만을 대상으로 똑같이 도덕성 평가를 물어 본 결과 결과적으로 정동영 후보만 도덕성평가가 약간 나빠졌을 뿐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에 대한 평가는 유지되었다. 표면적으로는 BBK 동영상의 영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3] 도덕성 평가 평균점수 변화(점)

	3차 10월	4차 11월 25-27일	5차 검찰발표이후	6차 BBK동영상	(척도)
문국현	5.8 ↗	6.1	↗ 6.2		10 도덕적
권영길	5.8 →	5.8	↗ 5.9		
정동영	5.4 ↘	5.3	↗ 5.5	5.3	5 보통
이회창		5.1	↗ 5.2	5.2	
이인제	4.6	4.5	↗ 4.5	4.5	0 비도덕적
이명박	5.1 ↘	4.1	↗ 4.3		

[그림1] BBK 동영상 유포 후 이명박 후보에 대한 생각 변화(%)



□ 이명박 후보에 실망한 층에는 투표에 미친 영향 커.

그러나 BBK 동영상 사건에 대한 응답별로 5차 대선지지와 6차 대선지지 사이의 변동을 살펴보면 이명박 후보 지지층에서는 이탈효과를, 이회창 후보 및 정동영 후보 지지층에서는 상당한 지지결집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부동층에서는 BBK 동영상으로 인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생각변화가 정동영 후보 지지효과를 가져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투표한 사람만 분석을 해보면 별 영향이 없다는 응답자 대상으로 5차 조사에서 이명박을 지지했던 747명을 분석해보면 6차 조사에서 이명박 후보를 계속 지지한 비율이 98%, 이명박 후보에 대한 인상이 나빠졌다는 응답자 109명 중에서 6차 조사에서 이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은 66.1%에 불과했다. 반면 이회창 후보 지지자의 경우 별영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5차지지가 6차 투표로 이어진 비율이 68.7%에 불과했지만, 이명박 후보가 싫어졌다고 응답한 층에서는 무려 82.6%가 투표로 이어진다. 정동영 후보의 경우도 별영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5차 정동영 지지층의 85.7%가 정동영 후보에 대한 투표로 이어진 반면 이명박 후보가 싫어졌다고 응답한 층에서는 97.8%가 정동영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5차 조사



에서 부동층이었던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47.8%가 이명박 후보에게 투표를 했고, 정동영 후보에게 투표를 한 사람은 22.9%에 불과했다. 그러나 BBK 동영상으로 이명박 후보에게 실망한 사람 중에서는 20.4%가 이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38.1%가 정동영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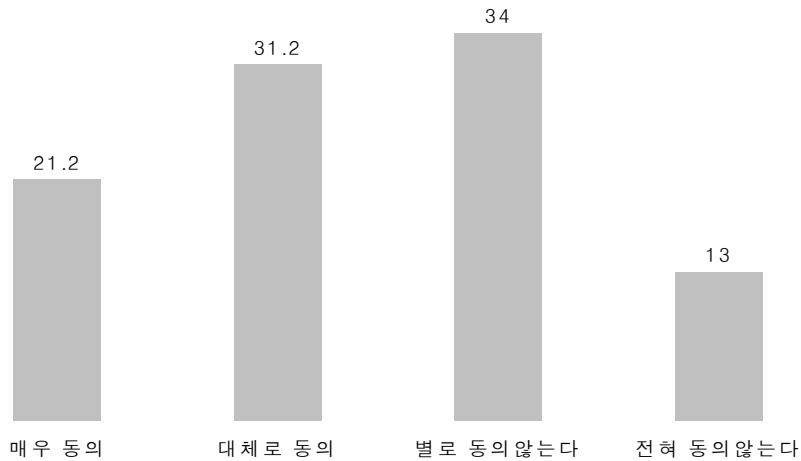
□ 기권 비율에도 영향 미쳐

별 영향이 없다는 응답자 중 5차조사에서 이명박을 지지했던 784명 중 6차 조사에서 기권율은 4.7%였지만 이명박 후보에 대한 인상이 나빠졌다는 응답자 123명 중에서 6차 조사에서 기권한 비율은 11.4%로 두 배 이상이 많았다.

□ BBK 관련 특별검사제 대해서는 찬반 팽팽히 맞서

특별검사제 도입에 찬성 52.4%,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7.0%

[그림2] 특검제 도입에 대한 의견(%)





[표4] BBK동영상 태도별 대선투표(%)

			대선지지6							Total	
BBK 동영상	태도	대선 지지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이인제	다른 후보	모름	Total
이후보 좋아짐	대선 지지 5	이명박	66	0	0				0		66
			100.0%	.0%	.0%				.0%		100.0%
		이회창	3	1	0				0		4
			75.0%	25.0%	.0%				.0%		100.0%
		정동영	0	0	5				0		5
			.0%	.0%	100.0%				.0%		100.0%
		문국현	1	0	0				0		1
			100.0%	.0%	.0%				.0%		100.0%
		이인제	3	0	0				0		3
			100.0%	.0%	.0%				.0%		100.0%
	부동층/기권	2	0	3				1		6	
		33.3%	.0%	50.0%				16.7%		100.0%	
	Total	75	1	8				1		85	
		88.2%	1.2%	9.4%				1.2%		100.0%	
별 영향 없었다	대선 지지 5	이명박	732	2	6	4	0	0	1	2	747
			98.0%	.3%	.8%	.5%	.0%	.0%	.1%	.3%	100.0%
		이회창	22	68	9	0	0	0	0	0	99
			22.2%	68.7%	9.1%	.0%	.0%	.0%	.0%	.0%	100.0%
		정동영	9	1	78	2	0	0	0	1	91
			9.9%	1.1%	85.7%	2.2%	.0%	.0%	.0%	1.1%	100.0%
		문국현	6	2	6	37	6	0	0	0	57
			10.5%	3.5%	10.5%	64.9%	10.5%	.0%	.0%	.0%	100.0%
		권영길	4	2	4	1	13	0	0	0	24
			16.7%	8.3%	16.7%	4.2%	54.2%	.0%	.0%	.0%	100.0%
이인제	1	0	0	0	0	3	0	0	4		
	25.0%	.0%	.0%	.0%	.0%	75.0%	.0%	.0%	100.0%		
다른후보	1	1	1	0	0	0	0	0	3		
	33.3%	33.3%	33.3%	.0%	.0%	.0%	.0%	.0%	100.0%		
	부동층/기권	52	9	25	12	6	0	1	4	109	
		47.7%	8.3%	22.9%	11.0%	5.5%	.0%	.9%	3.7%	100.0%	
	Total	827	85	129	56	25	3	2	7	1134	
		72.9%	7.5%	11.4%	4.9%	2.2%	.3%	.2%	.6%	100.0%	
이후보 싫어짐	대선 지지 5	이명박	72	9	12	10	4	0	0	2	109
			66.1%	8.3%	11.0%	9.2%	3.7%	.0%	.0%	1.8%	100.0%
		이회창	9	95	5	6	0	0	0	0	115
			7.8%	82.6%	4.3%	5.2%	.0%	.0%	.0%	.0%	100.0%
		정동영	3	2	223	0	0	0	0	0	228
			1.3%	.9%	97.8%	.0%	.0%	.0%	.0%	.0%	100.0%
		문국현	3	2	24	59	8	1	1	0	98
			3.1%	2.0%	24.5%	60.2%	8.2%	1.0%	1.0%	.0%	100.0%
		권영길	0	2	7	3	13	0	0	0	25
			.0%	8.0%	28.0%	12.0%	52.0%	.0%	.0%	.0%	100.0%
이인제	0	0	2	0	0	2	0	0	4		
	.0%	.0%	50.0%	.0%	.0%	50.0%	.0%	.0%	100.0%		
다른후보	1	0	0	1	0	0	3	0	5		
	20.0%	.0%	.0%	20.0%	.0%	.0%	60%	.0%	100.0%		
	부동층/기권	23	19	43	19	2	0	0	7	113	
		20.4%	16.8%	38.1%	16.8%	1.8%	.0%	.0%	6.2%	100.0%	
	Total	111	129	316	98	27	3	4	9	697	
		15.9%	18.5%	45.3%	14.1%	3.9%	.4%	.6%	1.3%	100.0%	
처음들여봤다	대선 지지 5	이명박	3	0	0	0	0				3
			100.0%	.0%	.0%	.0%	.0%				100.0%
		이회창	2	3	0	0	0				5
			40.0%	60.0%	.0%	.0%	.0%				100.0%
		정동영	0	0	4	0	0				4
			.0%	.0%	100.0%	.0%	.0%				100.0%
		문국현	0	0	0	4	0				4
			.0%	.0%	.0%	100.0%	.0%				100.0%
		권영길	3	0	0	0	0				3
			100.0%	.0%	.0%	.0%	.0%				100.0%
부동층/기권	0	0	0	0	2				2		
	.0%	.0%	.0%	.0%	100.0%				100.0%		
	Total	8	3	4	4	2				21	
		38.1%	14.3%	19.0%	19.0%	9.5%				100.0%	
잘 모름/무응답	대선 지지 5	이명박	3	0	0	0				0	3
			100.0%	.0%	.0%	.0%				.0%	100.0%
		정동영	0	2	0	0				1	3
			.0%		66.7%	.0%				33.3%	100.0%
		문국현	1	0	0	0				0	1
	100.0%	.0%	.0%	.0%				.0%	100.0%		
부동층/기권	1	0	1					0	2		
	50.0%	.0%	50.0%					.0%	100.0%		
	Total	5	2	1					1	9	
		55.6%		22.2%	11.1%				11.1%	100.0%	



[표5] BBK동영상 태도별 대선지지(기권포함)

BBK 동 영상	태도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대선지지6(기권포함)						Total	
					문국현	권영길	이인제	다른 후보	모름	기권		
이후보 좋아짐	대선 지지 5	이명박	66	0	0			0				66
			100.0%	.0%	.0%			.0%				100.0%
		이회창	3	1	0			0				4
			75.0%	25.0%	.0%			.0%				100.0%
		정동영	0	0	5			0				5
			.0%	.0%	100.0%			.0%				100.0%
		문국현	1	0	0			0				1
			100.0%	.0%	.0%			.0%				100.0%
		이인제	3	0	0			0				3
		100.0%	.0%	.0%			.0%				100.0%	
	부동층/기권	2	0	3			1				6	
		33.3%	.0%	50.0%			16.7%				100.0%	
	Total	75	1	8			1				85	
		88.2%	1.2%	9.4%			1.2%				100.0%	
별 영향 없음/주 였다	대선 지지 5	이명박	732	2	6	4	0	0	1	2	37	784
			93.4%	.3%	.8%	.5%	.0%	.0%	.1%	.3%	4.7%	100.0%
		이회창	22	68	9	0	0	0	0	0	10	109
			20.2%	62.4%	8.3%	.0%	.0%	.0%	.0%	.0%	9.2%	100.0%
		정동영	9	1	78	2	0	0	0	1	7	98
			9.2%	1.0%	79.6%	2.0%	.0%	.0%	.0%	1.0%	7.1%	100.0%
		문국현	6	2	6	37	6	0	0	0	2	59
			10.2%	3.4%	10.2%	62.7%	10.2%	.0%	.0%	.0%	3.4%	100.0%
		권영길	4	2	4	1	13	0	0	0	1	25
		16.0%	8.0%	16.0%	4.0%	52.0%	.0%	.0%	.0%	4.0%	100.0%	
이인제	1	0	0	0	0	3	0	0	0	4		
	25.0%	.0%	.0%	.0%	.0%	75.0%	.0%	.0%	.0%	100.0%		
다른후보	1	1	1	0	0	0	0	0	1	4		
	25.0%	25.0%	25.0%	.0%	.0%	.0%	.0%	.0%	25.0%	100.0%		
부동층/기권	52	9	25	12	6	0	1	4	30	139		
	37.4%	6.5%	18.0%	8.6%	4.3%	.0%	.7%	2.9%	21.6%	100.0%		
	Total	827	85	129	56	25	3	2	7	88	1222	
		67.7%	7.0%	10.6%	4.6%	2.0%	.2%	.2%	.6%	7.2%	100.0%	
이후보 싫어짐	대선 지지 5	이명박	72	9	12	10	4	0	0	2	14	123
			58.5%	7.3%	9.8%	8.1%	3.3%	.0%	.0%	1.6%	11.4%	100.0%
		이회창	9	95	5	6	0	0	0	0	9	124
			7.3%	76.6%	4.0%	4.8%	.0%	.0%	.0%	.0%	7.3%	100.0%
		정동영	3	2	223	0	0	0	0	0	20	248
			1.2%	.8%	89.9%	.0%	.0%	.0%	.0%	.0%	8.1%	100.0%
		문국현	3	2	24	59	8	1	1	0	8	106
			2.8%	1.9%	22.6%	55.7%	7.5%	.9%	.9%	.0%	7.5%	100.0%
		권영길	0	2	7	3	13	0	0	0	4	29
		.0%	6.9%	24.1%	10.3%	44.8%	.0%	.0%	.0%	13.8%	100.0%	
이인제	0	0	2	0	0	2	0	0	2	6		
	.0%	.0%	33.3%	.0%	.0%	33.3%	.0%	.0%	33.3%	100.0%		
다른후보	1	0	0	1	0	0	3	0	0	5		
	20.0%	.0%	.0%	20.0%	.0%	.0%	60%	.0%	.0%	100.0%		
부동층/기권	23	19	43	19	2	0	0	7	17	130		
	17.7%	14.6%	33.1%	14.6%	1.5%	.0%	.0%	5.4%	13.1%	100.0%		
	Total	111	129	316	98	27	3	4	9	74	771	
		14.4%	16.7%	41.0%	12.7%	3.5%	.4%	.5%	1.2%	9.6%	100.0%	
처음들 어쨌든	대선 지지 5	이명박	3	0	0	0	0				0	3
			100.0%	.0%	.0%	.0%	.0%				.0%	100.0%
		이회창	2	3	0	0	0				0	5
			40.0%	60.0%	.0%	.0%	.0%				.0%	100.0%
		정동영	0	0	4	0	0				0	4
			.0%	.0%	100.0%	.0%	.0%				.0%	100.0%
		문국현	0	0	0	4	0				0	4
			.0%	.0%	.0%	100%	.0%				.0%	100.0%
		권영길	3	0	0	0	0				0	3
		100.0%	.0%	.0%	.0%	.0%				.0%	100.0%	
부동층/기권	0	0	0	0	2				4	6		
	.0%	.0%	.0%	.0%	33.3%				66.7%	100.0%		
	Total	8	3	4	4	2			4	25		
		32.0%	12.0%	16.0%	16.0%	8.0%			16.0%	100.0%		
잘 모름 / 무응 답	대선 지지 5	이명박	3		0	0				0	0	3
			100.0%		.0%	.0%				.0%	.0%	100.0%
		정동영	0		2	0				1	0	3
			.0%		66.7%	.0%				33.3%	.0%	100.0%
		문국현	1		0	0				0	0	1
		100.0%		.0%	.0%				.0%	.0%	100.0%	
부동층/기권	1		0	1				0	1	3		
	33.3%		.0%	33.3%				.0%	33.3%	100.0%		
	Total	5		2	1				1	1	10	
		50.0%		20.0%	10.0%				10.0%	10.0%	100.0%	



(2) 차기정부의 과제와 전망

□ 차기정부의 정책 방향

교육과 대외무역정책에 대해서는 이 후보 지지하지만 한반도 대운하와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무역개방을 계속 개방속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9.0%, 완화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9.5%였다. 이명박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대학자율 선발권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63.6%에 달했다.

그러나 논란이 되어온 한반도 대운하는 찬성 43.1%, 반대 45.6%로 찬반이 팽팽히 맞섰고,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복지예산을 현행유지/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43.3%,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55.1%였다. 경제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탓으로 보인다.

(3) 향후 총선 정국 전망

1. 여대야소인가? 여소야대인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을 밀어야 한다는 의견이 45.4%, 국정운영에서 대통령 견제를 위해 야당을 밀어야 한다는 의견이 34.6%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바라는 응답은 이명박 지지층에서는 71.1%고, 이회창 후보 지지자는 33.1%, 정동영 후보,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지지자의 경우 13~15%에 불과했다.

[표6] 차기 총선에 대한 입장

Base=전체	사례수 (명)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대통령 정당을밀어 줘야한다	국정운영 에서대통령 의독주권을 막기위해 야당을밀어 줘야한다	잘 모르겠다	계
		%	%	%	
전체	(2111)	45.4	34.6	20.0	100.0
이명박 지지자	(1026)	71.1	13.8	15.1	100.0
이회창 지지자	(217)	33.1	43.9	22.9	100.0
정동영 지지자	(459)	14.0	66.5	19.5	100.0
권영길 지지자	(7)	61.9	7.8	30.3	100.0
문국현 지지자	(55)	10.3	72.5	17.2	100.0
다수당 지지자	(160)	13.2	61.8	25.0	100.0
투표 유권자	(6)	15.0	.0	85.0	100.0
표 미투표	(165)	36.0	26.7	37.4	100.0
모름 / 응답	(16)	9.8	33.5	56.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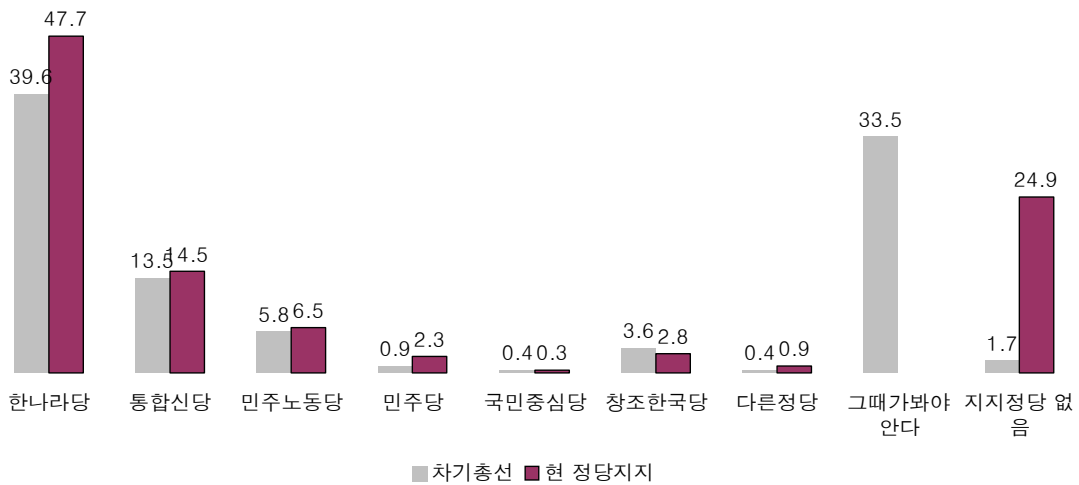
2. 차기 총선 때 지지정당

한나라당 39.6%, 통합신당 13.5%, 민주노동당 5.8%, 그때 가봐야 안다 33.5%



한나라당의 경우 현재의 정당 지지도에 다소 못 미치는 결과이다. 현재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 47.7, 통합신당 14.5, 민주노동당 6.5, 민주당 2.3, 창조한국당 2.8, 지지정당 없다는 24.9%인 반면 차기총선 때 한나라당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9.6%에 불과하고, 그 때 가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33.5%였다. 이명박 후보의 압도적 당선으로 인해 자칫 심각한 권력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3] 현 정당 지지와 차기 총선지지 정당



실제로 총선에 대한 입장에 따라 총선 지지정당에도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을 밀어야 한다는 응답자는 72.3%가 한나라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대통령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대통령 통합신당 지지가 29.8%, 그 때 가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39.0%에 달했다. 잘 모르겠다는 20%에 달하는 응답자들 중 현재는 한나라당을 찍겠다는 응답자들이 20% 가까이 되지만 그 때 가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55.3%였다. 결국 한나라당 지지 의사를 밝힌 사람이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응답자들 역시 33.6%에 달해 이후 여야간 정쟁 양상 변화에 따라 총선투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표7] 총선 입장별 차기총선 지지정당

총선 입장	차기총선 지지정당										Total
	한나라당	대통합민 주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창조한국당	다른정당	그때가봐야 안다	지지정당 없음	무응답	
여대야소	693	35	13	3	3	14	3	191	1	2	958
여소야대	57	217	84	12	2	51	4	284	14	4	729
잘 모르겠음	85	32	25	4	4	10	2	233	22	4	421
Total	835	284	122	19	9	75	9	708	37	10	2108
	39.6%	13.5%	5.8%	.9%	.4%	3.6%	.4%	33.6%	1.8%	.5%	00.0%